

KOREA  
INTERIOR  
DESIGN  
BEST  
AWARDS

名家名人賞

interiors



###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이란?

디자인이 순수 예술과 다른 점은 심미성과 함께 유용성까지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건축설계는 특히나 이런 점이 두드러지며 새로운 변화가 적용되는 것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본질적 가치'와 '변화하는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행에 따라 공간은 객체로서 평면적으로, 시각적으로 소비되기도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있는 장소를 주체적으로 인지하며 그 안에서 불편의 건축요소를 찾고 정주의 욕구를 추구한다. 공간을 장소로 바꾸는 것이 건축가가 해야 할 디자인이라고 본다.

### 我心目中的“设计”是...

设计与纯粹艺术的不同之处在于前者在具备审美性的同时, 还要满足实用性。建筑设计在这一点上尤为突出, 因为建筑设计引入新的变化通常需要漫长的时间, 因此我认为, 思考本质的价值和变化的价值尤为重要。有时空间会追随流行, 作为客体在平面上、视觉上被消费, 但人们更倾向于作为主体认识自己所在的场所, 寻找其中不变的建筑元素, 追求定居的欲望。在我看来, 让空间变成场所是建筑师应该做的设计。

### The design I think is...

The difference between design and fine art is that design must satisfy both aesthetics and usefulness. Architectural design is particularly remarkable in this regard, and I think it is important to think about the essential and changing values because it takes a long time to apply new changes. Depending on trends, space is consumed flatly and visually as an object, but people recognize their place subjectively, find immutable architectural elements in it, and pursue the desire for settlement. I think the designer should transform a space into a place.

# STAY ARCHITECTS



소여정은 경주의 주요 관광지과 가까이 위치하지만 숨어있는 듯한 오래된 공간이다. 복고적인 모습이 녹아 있는 전형적인 개량한옥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형태의 한옥을 경험할 수 있는 소여정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전통 건축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목구조 기단부의 삭음과 부재의 처짐을 해결하기 위해 신축에 가까운 부재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시대성을 드러내는 담장과 대문의 형상은 유지한 채 마감재를 교체하였으며, 본체의 외벽은 기능성과 사용성을 고려하여 구조재를 과감하게 가리고 현대식으로 마감했다. 내부 공간은 칸으로 구획된 기존 평면을 고려하여 계획했다. 대청을 중심으로 각 칸을 구획하던 비내력벽을 모두 철거하여 전체공간을 개방된 구조로 구성했으며, 칸을 나누는 구조 부재를 기준으로 소형 정원과 함께 거실, 욕실, 식당, 그리고 침실을 각각 배치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실 칸은 외부의 높이와 동일하게 바닥 단을 낮추었다. 석재 욕조는 거실과 연결하여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언제나 중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小餘情虽然靠近庆州的主要景点，却是一个大隐于市的历史悠久的空间。小餘情既保留了融入复古情调的典型改良韩屋的氛围，又能够体验到全新形态的韩屋，呈现了形态多变的传统建筑的另一张面孔。

为了解决木结构基坛部分腐坏和构件下沉的问题，设计团队进行了近乎于重建的大规模更换。设计师保留了体现时代性的围墙和大门样式，只更换了外饰材料，而主屋的外墙则考虑到功能性和使用性，果断地遮挡住了旧的建材，用现代风格进行了外饰施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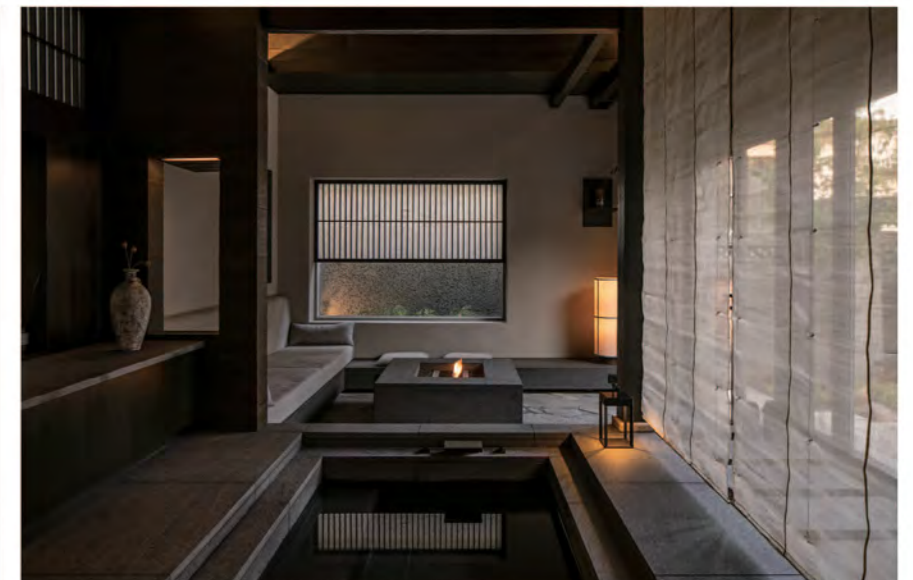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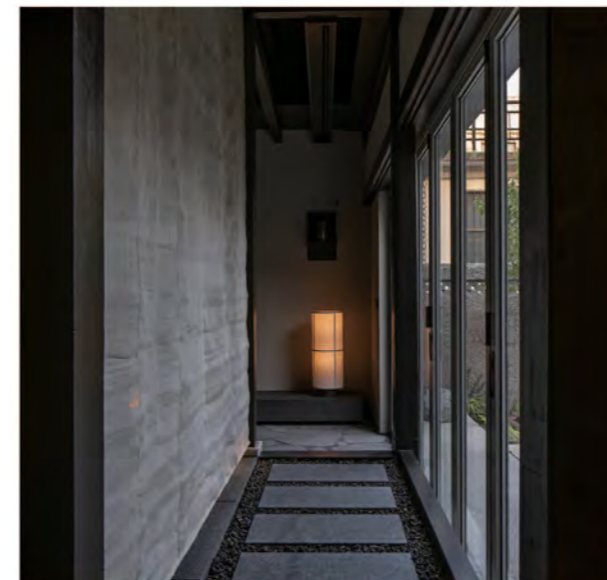
内部空间按照原有的房间规划进行重新布局。以大厅为中心，拆除了所有原本用作房间隔断的非承重墙，将整个空间打造成开放的结构，再以划分房间结构的构件为标准，与小型庭院一起，划分出客厅、浴室、餐厅和卧室的布局。客厅空间做了下沉处理，地面高度与外部高度一致。石制浴缸与客厅相连，是人们逗留时间最长的空间，设计成了可以随时看到中庭的布局。



SAWYERJEONG is an old space that seems to be hidden even though it is located close to main tourist attractions in Gyeongju. It allows customers to experience a new Hanok while maintaining the atmosphere of a typical modernized Hanok with a retro appearance, showing another aspect of traditional architecture.

Structural materials were replaced close to new construction, solving the weakening of wooden base and the sagging of materials. Finishing materials were replaced while maintaining the shape of the fence and gate that had the character of times, and exterior wall of main building boldly covered the structural materials and was finished in a modern style considering functionality and usability.

The interior space was planned according to the existing floor plan divided into compartments. The entire space was constructed as an open structure by removing all the non-bearing walls. And the living room, bathroom, dining room, and bedroom were arranged along with a small garden based on the structural materials. The living room floor is lowered at the same level as the outside. The stone bathtub connected to the living room is the place where users stay the longest time, and is designed to always have a view of the courtyard.



스튜디오 소개 부탁드립니다.

**홍정희** \_ 저희는 스테이 아키텍트 건축사사무소고요. 인테리어디자인부터 건축 영역까지, 장소를 만드는 것에 관련된 것은 다 다루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호텔이나 아파트 같은 규모 있는 프로젝트도 다루고 있고, 조금 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업들이 건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축 분야에서 작업하고 계신가요?

**홍정희** \_ 요즘에는 건축일이 조금 더 주가 되는 것 같고, 인테리어디자인은 단발적인 것보다는 사업성과 관계가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행보나 포트폴리오상으로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고정석** \_ 최근에는 소여정 프로젝트에서 텍스타일과 패브릭을 작업해주신 작가님의 소룸 겸 작업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장충동의 숙박시설 프로젝트를 착수했는데, 오래된 여관을 새로운 언어로 구축해서 청년과 주민 간 상호관계에 부합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쁜 한 해를 보내셨겠네요.

**고정석** \_ 저희가 진행 과정을 공유한다든지, 결과물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늦은 편이기는 해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지 알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올해 준공작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특별히 바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굉장히 바빴던 한 해이긴 했었어요.

이번 평가명인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홍정희** \_ 월간인테리어가 인테리어 잡지 중에서 역사도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데, 저희를 알아봐 주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건축에 국한되지 않고 장소를 만드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디자인은 저희 업역에서 빠질 수가 없는 분야거든요. 그게 와닿았다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인테리어디자인 프로젝트든 건축 프로젝트든 대중들에게 좀 더 알려질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석** \_ 멘토가 칭찬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쁩니다. 다른 인테리어 디자이너들과 교류하면서 월간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했었어요. 다만 저희가 월간인테리어와 접점이 될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갑작스럽지만, 저희를 알아봐 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여정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홍정희** \_ 처음에는 인테리어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진행했던 건데, 실제로 착공하고 보니까 손대야 할 게 아주 많더라고요. 오래된 목구조 건축이어서 노후화된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대수선에 가까운 공사가 됐고, 두세 달 정도 예상했었는데 다섯 달이 넘게 걸렸죠.

**고정석** \_ 저희도 많이 고생했지만 어쨌든 건축주분도 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저희를 믿어주셨고, 결과에는 굉장히 만족하고 계세요. 대중에게도 전달이 잘 돼서, 경주 안에서 숙박시설로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소여정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간을 밀집시켜서 특별함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하고 싶어 하고, 이에 대해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뭔가요?

**고정석** \_ 어떤 부분이나 요소가 마음에 든다기보다 전체적으로 맞닿았을 때 물성과 물성이 만나는 것, 장소에서 장소로 변하는 시퀀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체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소여정이라는 공간 자체가 만족스럽습니다.

**홍정희** \_ 소여정 이전에 호미양양이라는 프로젝트부터 건축물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공간까지 기획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소여정에서는 그걸 조금 더 감도 높게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어요. 인테리어디자인부터 향, 패브릭, 작은 커튼리나 소품 하나하나까지 공간에 있는 경험을 주는 모든 요소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 있나요?

**고정석** \_ 보편적으로 건축주와 많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건축이 많다 보니, 프로젝트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건축주와 계속 보게 되거든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모든 건축주들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취향을 많이 공유해요. 그리고 그것을 결과물에 반영하는 거죠. 그 둘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홍정희** \_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축물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단일 디자인이나 단일 건축물보다는 건축, 프로그램의 흐름에 더 관심이 있어요. 올해에는 싱가포르에 다녀왔고, 곧 일본에도 방문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을 사회적 단계를 이미 겪은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해외 사례를 통해서 그 변화가 어떻게 한국화될 수 있을까를 먼저 예측해보고, 그에 대한 사업 모델을 생각해 봐요. 예를 들면 핵가족이나 1인 주거의 형태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먼저 겪은 나라의 주거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문화 공간의 타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공부해 보고 그걸 어떻게 한국화해서 정착시킬 것인가 같은 대화를 많이 해요. 이를 통해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건축물 작업을 해보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INTERIORS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정희** \_ 저는 인테리어디자인 잡지 중에서는 월간인테리어가 가장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프로젝트로 소통할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분야에서 대중적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라이프스타일지는 아닌, 전문성이 있는 그 위치를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석** \_ 점점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테리어디자인은 《INTERIORS》, 건축은 《SPACE》, 디자인 전반은 《디자인》이 각 분야의 대표적인 잡지라고 생각하는데, 세 잡지 모두 최초의 영역만을 고수하지 않고 풀을 넓혀가고 있잖아요.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브랜딩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간 디자이너들도 건축이나 인테리어디자인 중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요.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INTERIORS》에도 건축 콘텐츠가 많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 건축 분야와의 소통도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